

보도시점:

2024. 3. 7.(목) 08:30

배포:

2024. 3. 7.(목) 08:30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끌어올린다

- 국민권익위, 이달 7일부터 청렴도 저조기관 24곳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23년도 청렴컨설팅 실시 기관 중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
-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12곳 멘토로 나서 반부패 시책 노하우 등 전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 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 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 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 시책과 추진 경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은 오늘(7일) 청렴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국민권익위-멘토·멘티기관-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자문회의 ▲그룹별 자유회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 청렴컨설팅 내용 및 진행절차 】

- **(반부패역량 진단)** 기관별 반부패 업무계획, 종합청렴도 결과,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등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청렴도 저조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자문회의)** 국민권익위, 멘토·멘티기관, 반부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회의를 통해 추진된 시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유회의, 워크숍)**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추진기반, 반부패 시책 추진 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많은 기관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저조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이 향상되고 공공분야 전반에 청렴한 업무 관행과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재일 (044-200-7611)
		담당자	사무관	변규태 (044-200-7612)



□ 총 12개 그룹(멘토 12개, 멘티 24개)

구분	멘토기관	멘티기관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2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김천시
3	대구 북구	경산시	부산 강서구
4	경주시	공주시	안동시의회
5	순천시	순창군	울산 중구
6	서울 서초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7	포천시	강릉시	가평군
8	경상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9	한국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10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서울교통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전라남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군산시의회